

# 사해불자 여러분에게 고하나다

삼보에 귀의하옵시고

제방의 고승대덕 큰 스님들과 사해불자 여러분!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번지 소재의 반룡산 모은사의 신도들이 우리 불법문중(佛法門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세속인도 할 수 없는 일을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종정 장모스님과 총무원장 이모스님 등이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여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모은사 절은 96년 9월 14일 대한불교 법화종에서 탈종하여 96년 9월 23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에 입종하였으나,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과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99년 3월 13일 탈종하여 현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도 일불선교종 지도부는 07. 2.19경부터 우리 모은사 절을 소유하려고 획책하고 있기에 부득이 이 일을 전체 불법문중에 알려 다른 사찰들도 피해를 보지않고,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 불법문중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이렇게 필을 들어 삼가 제방의 고승대덕 큰 스님들과 사해불자 여러분들에게 고하게 되었습니다.

모은사 절은 60년도에 고 강수부씨가 개인 사재를 출연하여 창건하였고, 고 강수부씨가 입적(入寂)하시자 현 모은사 창건주이자 고 강수부씨의 둘째아들인 강득진 거사가 병든 노모를 봉양하면서도 부모가 창건한 모은사 절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자 선대(先代)의 업적을 빛내는 훌륭한 효자(孝子)라 하여 모은사 창건주 강득진 거사에게 70.5.26. 사천군에서 효자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또 고 강수부 씨가 입적한 후인 79. 4월에는 창건주 강득진 거사가 돈을 내어 장형(長兄)인 강득문 명의로 사찰재산인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번지를 매입하여 80년 10월에 모은사 사찰재산으로 등기하는 등 강득진 거사가 고 강수부씨의 대를 이어 창건주로서 모은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왔다는 것은 우리 모은사 신도뿐 아니라 사천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또 모은사 창건주 강득진 거사는 승려가 아니면서도 모은사를 중심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노인 무료급식 등을 펼쳐왔고, 제3대 사천시의회 의원(98. 7. 1~03.6.30)에 당선되어 사천시 불교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사천시 지역발전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었기에 04.10.28 에는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지금은 사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06. 2부터 사남농업협동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모범시민이며 모범농민으로서 우리 모범 불자들의 귀감이라 아니할 수 없기에 우리 모은사는 그 동안 무사태평하게 사천시 내에서 모범적인 사찰로 손 꼽아 왔습니다.

그런데 07년 2월 모은사의 주지로 봉직해오던 고 이수원(현공)스님이 급환(急患)으로 입적(入寂)을 하자 고(故) 이 수원(현공)스님 입적 후 모은사 신도임원회의에서는 입적한 고 이수원(현공)스님의 뒤를 이을 시봉상좌가 없으므로, 고 이수원(현공)스님의 은사스님이며 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의 원로의원인 정동섭(법명 동명) 큰 스님을 주지로 추대하자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스님 등은 우리 모은사 절을 소송(訴訟) 등 송무사무(訟務事務)에 능한 조계종 소속승려인 김모스님을 끌어들여, 모은사가 이미 99년 3월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에서 탈종을 하였으며, 또 07년 2월에 입적한 모은사 전임주지인 고 이수원(현공스님)은 03년도에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에서 실시한 승려분한신고서 분한신고도 필하지도 않았기에 대한불교일불선교종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대도 불구하고,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소속사찰은 모두 공유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종단공찰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03년 7월에 입적한 모은사 전 주지 고 이수원(현공스님)이 모은사의 창건주가 강득진이 아니고 강수부로 바꾸어 놓았다는 주장을 하며(※사해불자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계는 사찰 창건주가 주지를 선

택할 권한은 있어도 주지가 창건주를 바꿀 권한이 없는 것이 불교계의 일반관례가 아닙니까) 모은사 창건주 강득진 거사는 모은사의 창건주가 아니고 모은사 신도회에서 새로 모신 신임 주지 정동명 큰스님도 모은사의 주지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무원 규정부장직에 있다는 손모 스님을 모은사 주지서리로 또 홍모 스님을 부주지로 임명하여 2007년 2월 12일 저의 모은사 주지였던 고 이수원(법명 현공)스님 입적 후 약 1주일이 지난 07년 2월 19일 오전 8시경에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스님의 인솔하에 생면부지의 많은 스님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저희 모은사에 나타나 모은사 신임 주지 취임식을 거행한다고 하며 총무소와 주지실 등을 준비해 온 그네들의 자물쇠로 자기네들 임의로 채우고 출입금지 패를 붙여 놓고는 모은사 법당도 신도들이 마음대로 참배를 할 수 없게 통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천경찰서에 업무방해와 모욕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해오므로 모은사 불교재단 이사회에서는 부득이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무원장스님과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스님과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에서 모은사주지서리로 파견한 손모 스님과 부주지로 파견한 홍모 스님을 사천경찰서에 주거침입 및 종교행사 방해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 하고, 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에서 모은사주지서리로 파견한 손모 스님과 부주지로 파견한 홍모 스님을 상대로 부동산 출입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기에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을 이렇게 만천하에 고하게 되었습니다.

모은사 신도들은 감히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첫째, 일불선교종과 과거에 인연을 맺었다가 탈종을 한 사암(寺庵)이나 현재 일불선교종 소속 종도들은 현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종정스님과 총무원장 스님 일파가 파행적인 비상종단 형태로 부당하게 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좌시하지 말고 쫓기 하십시오. 그리하여 탈종사암은 모은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고, 일불선교종 종도들은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등이 03년에 자기네들 임의로 일불종도들의 대의기구(代議機構)인 중앙종회를 불법적으로 해산한 후에 종헌 중법의 중요기능을 정지(停止)하여 비상종단체제를 출범시키고는 현재까지 일선사암의 권익을 무시하고 일불종도들의 주권을 짓밟고 있음은 물론 이 비상종단체제하에서 자기네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 중앙종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던 총무원장 법철스님을 축출한 후에 자기들 임의대로 초종헌적이며 초종법적인 방법으로 일불종도의 의사를 무시하고 현 총무원장 체제를 출범시키고는 일불존자(一鵬尊者) 서 경보 큰 스님께서 창종하신 창종이념을 먹칠하고 있는 이들을 하루 속히 정화불사(淨化佛事)를 과감히 단행하시어 땅에 떨어진 종단의 위상을 하루 빨리 되찾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타 종단에 기생하여 불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조계종 소속종단의 스님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공정하게 하시어 다시는 불법문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제방의 고승대덕 큰 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불자님들께서는 모은사의 이번 사태를 계속 주시하여 주시고 모은사 신도들이 저들 불법행위자들(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 등)을 규탄하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은사의 신도들은 향후 모은사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우리 불교계에 발생하지 않도록 모은사 신도들은 두손 모아 삼보님께 원력 비읍니다.

불기 2551(2007)년 5월 2일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번지  
반룡산 모은사 신도일동